

“활짝 열린 무등산 정상… 9월 상시개방 기대돼요”

#일주_이슈

올 첫 무등산 정상 개방

기념품·무등세킷 행사 다채
탐방객 3000여명 정상 방문
“시민 공간 열리길 학수고대”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는 9월 상시 개방하면 무등산 정상을 누구나 볼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첫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4일 무등산 정상 지왕봉. 오전부터 가족, 연인, 동호회 회원 등 다양한 탐방객들로 붐볐다. 서석대에서 더 올라와 정상부 땅을 밟은 탐방객들은 흥건해진 땀을 닦으며 이리저리 풍경을 둘러보기 바빴다. 정상부 포토존에선 감탄사와 셔터 소리가 섞여 나왔다.

광주시는 이날 2011년 첫 개방 행사 이후 26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했다.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과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인왕봉과 지왕봉을 관망하고 군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900m 길이다. 정상부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진관인 ‘무등 세킷’,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탐방객들은 저마다 행사를 즐기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아이처럼 순수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시민 정승기씨는 “정상까지 가고 싶은 게 등산인들의 마음이다. 정상에 풍

경이 너무 궁금했는데 비밀이 풀린 느낌이다”며 “천왕봉까지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있다. 매연을 뿜는 차량 등이 정상 부근까지 올라오는데 이를 통제해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무등산 정상을 보기 위해 온 타지인도 많았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광주를 찾은 김상희씨는 “서석대, 입석대를 포함해 대자연을 유지하고 있는 무등산이 너무 멋있다”며 “국내 100대 명산을 타고 있다. 무등산은 100대 명산을 다 오르면 다 시 타고 싶은 산이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에서 온 김은비씨는 “3월3일 국립공원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무등산을 찾았다”며 “총 3번 무등산을 올랐는데 올 때마다 감동이 다르다. 상시 개방한다면 사계절을 드나들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도 유재철 환경부 차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과 정상에 올랐다.

특히 정선화 청장은 10년 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환경부 담당 부서 과장으로 있었다며 무등산과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정 청장은 “무등산과 처음 인연을 맺을 때 아름답고 좋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다시 무등산을 밟으니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0일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오는 9월부터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9월 상시 정상 개방을 기대하며 무등산에 올랐다”며 “방공포대가 완전히 철수해 시민의 공간이 열리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등산을 찾은 전체 탐방객은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정상부에는 3000여명이 방문했다.

▶ 관련기사 2·3면 김혜나 기자



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맞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난 4일 전국에서 온 등산객들이 무등산국립공원 지왕봉 일대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정부, 오늘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 대기업 제외 ‘3자 변제’

재단 배상·한일경제단체 모금 검토 피해자 단체 “불수용”…논란 일듯

정부가 6일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해법으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 담화의 ‘진심 어린 사죄’, ‘통절한 반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참

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우회 참여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3자 변제에 나설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로 부터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안에 일본 전범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나 기업들의 참여를 담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배상과 사과에 대해 일본 측 자발적인 호응에 기대야 할 뿐 아니라, 사안의 핵심인 일본의 반성과 사과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6면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사람들 (505/1000)

노정숙
예술가·기획자

▶ 관련기사 17면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